

‘진퇴양난’ 자영업자...돈 없어 폐업도 못한다

코로나 이후 저소득층 6만4577가구 증가...고소득·중상층 ↓ 정책자금 일시상환·리모델링 원상복구 등 폐업 목돈 필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폐업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책 절실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폐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받은 정부 정책자금도 일시상환해야 하고, 리모델링한 상가 원상복구 비용까지 목돈이 들어갑니다. 하루하루 빚만 늘어요.”
광주시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19 사태로 영예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인근에 새로

운 카페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심각한 경쟁에 치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받았던 정책자금 수천만 원을 일시상환하면서까지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가게 유리창에 ‘상가 임대’ 현수막을 붙여놓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

수록 A씨의 빛은 쌓여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에도 목돈이 들어가는 탓에 자영업자의 고층은 심화되고, 경쟁은 가열되면서 저소득층으로 밀려나는 자영업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어가, 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 고소득층(중위소득의 200% 초과) 13.1%, 중산층(중위소득의 75~

200%) 61.0%, 저소득층(중위소득의 75% 미만) 25.9%로 구성됐으나 올해 2분기에는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각각 1.3%포인트, 1.2%포인트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7588가구, 7만4091가구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은 6만4577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불황 속 창업으로 인한 업계간 과다경쟁 역시 저소득층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국제통계 100대 생활업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7만67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610명) 대비 5.65% 늘었다. 대표적 창업 업종인 커피 음료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같은 기간 1874명에서 2203명으로 무려 17.56%나 증가했을 정도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가 직장인 등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된 모습이다”며 “방역 조치 등 불가피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뿐 아니라, 손실을 이어가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중공업 스테콤 시험실, 국내 최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104개국 시험기관 동등 효력

효성중공업은 최근 창원공장 스테콤(STATCOM) 시험실이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는 국제 표준(IEC 62927)에 따라 시험기관의 환경, 품질시스템, 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KOLAS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간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04개국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스테콤은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로, 송전선로에 무효 전력의 공급과 흡수를 통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전력 품질을 높여주는 설비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의 신종주, 신영주변전소에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콤을 공급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KOLAS 인정 획득으로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평가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스테콤 글로벌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미국, 서남아 시장을 넘어 최근 신재생 발전 비중 증가로 스테콤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중동의 사우디 및 UAE, 동남아 등 미개척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지난 4월 800kW급 초고압변압기-차단기 시험실에 대해서도 KOLAS 인정을 획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증시 급락 8거래일간 외국인 자금 2조원 이탈

코스피 5.66%·코스닥 7.90% ↓

국내 증시가 급격히 출렁이기 시작한 지난달 말 이후 2조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코로나19 이후 증시 하단을 떠받치던 ‘동학 개미’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 넘게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8거래일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2조844억원어치(유가증권시장 1조9758억원·코스닥시장 1087억원)를 순매도했다.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5.66%, 7.90% 하락했다.
9월 한 달로 놓고 보면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조10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팔자 행진’을 멈추고 5개월 만에 월간 순매수를 보이며 돌아오는 듯했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 8거래일간 삼성전자를 9816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7409억원) 매도세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 주가는 7.98% 급락했다.

외국인은 또 삼성전자(3033억원·-7.92%), 카카오(1206억원·-2.08%), 삼성SDI(1050억원·-6.67%), SK하이닉스(841억원·-10.05%)도 대거 내다 팔았다.
공급량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중국恒大그룹 사태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로 위험 기피 현상이 발생해 신종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모습이 었다.
여기에 작년부터 외국인 투매를 고스란히 받아 내며 증시 하단을 떠받치던 ‘동학 개미’들도 최근 하락장에서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1%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한 지난 7일 개인은 938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연초 외국인 매도 행진을 이어갈 때 하루 2~3조원까지 순매수하며 매물을 고스란히 받아내던 것과 대비된다.
이달 개인 일 평균 순매수 금액도 1914억원으로 지난 1월(1조2935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가을철 모발관리 홈케어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헤어 전문 브랜드 ‘아베다’ 매장에서 직원인 ‘인바티 어드밴스드’ 기능성 헤어관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헤어 관리 제품은 두피 각질 제거와 모발 감소 개선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다시 상승세 탄 가상화폐...비트코인 7000만원대 회복

9월 들어 조정기를 거친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시가총액은 9월 저점 대비 30% 넘게 늘어났고, 비트코인은 7000만원대를 회복했다.
11일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자체 시장지수(UBMI, 2017년 10월 1일=1,000)는 10월 오후 7시 30분 현재 12,479.05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 거래 시장에 상장한 모든 코인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해 파악할 수 있다.
지수는 올해 5월 9일 13,97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격히 내려 7월 20일에는 6,233.81까지 하락했다.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9월 6일에는 12,098.45까지 올랐으나 다시 조정기를 거쳐 10,000선이 무너졌다. 같은 달 28일에는 9,541.12까지 내렸다.
하지만 9월 말부터 서서히 회복하더니 10월 들어서는 12,000선을 되찾았다. 10월 오후 7시 30분 현재 지수(12,479.05)는 9월 저점 대비 30.8% 오른 값이다. 한마디로 업비트 원화 시장에 상장된 전체 코인의 시가총액이 보름도 안 돼 30% 넘게 늘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9월 한때 개당 5000만원을 밑돌다가 이날 오후 3시6분 현재 6970만4000원으로 약 5개월 만에 7000만원대를 회복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